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모드 돌입...28일 최종 엔트리 발표

국내파 위주 16명 서울서 실내 훈련...내달 2일 UAE로 출국
황의조 대체 선수 주민규 제외...최전방 포지션 조규성만 발탁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 국내파 위주로 서울 시내 호텔에서 소집돼 31일까지 실내 체력 단련 위주로 몸만들기에 돌입한다. 16명이 모이는 국내 소집에는 국내파 11명과 해외파 5명이 포함됐다. 국내파는 조현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 김진수, 문선민, 박진섭(이상 전북), 이기제(수원), 김주성(서울), 이순민(광주)이고, 해외파는 조규성(미트윌란),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츠베스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송범근(쇼난벨마레)이다.

크리그 선수들은 모두 26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해외파는 개인별 귀국 일정에 맞춰 훈련에 합류한다. 불법 촬영 혐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대표팀에서 제외된 스트라이커 황의조(노리치시티)의 대체 선수로 관심을 모은 올 시즌 크리그1 득점왕 주민규(울산)가 제외된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엔 덴마크 리그에서 뛰는 조규성만 발탁됐다. 국내파 소집 기간인 28일 아시안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가 발표될 예정이라 주민규가 다시 발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최종 명단은 28일 서울 용산 CGV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발표

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자리에서 선수 선발 배경과 대회 로드맵 등을 밝힐 예정이다. 대표팀은 내년 1월2일 전지훈련 캠프가 차려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해 최종 담금질에 나선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주요 해외파는 아부다비에서 합류한다. 1월6일에는 현지에서 이라크와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고, 10일 결전지인 카타르로 이동한다. 이라크와 평가전은 아시안컵에서 만날 중동팀을 대비한 예방 주사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라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3위로 한국(23위)보다 낮다. 역대 전적에선 22차례 만나 한국이 8승12무2패로 앞선다. 클린스만호는 같은 달 15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20



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차례대로 붙는 한국은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손흥민 “지난해 많이 아팠다...올시즌 목표는 4위 진입”

“이제 통증 없어...팀 위해 최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지난 2022~2023시즌 부상으로 통증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올시즌 목표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위 진입을 제시했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 '2023~2024 EPL' 18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8분 추가골을 터뜨려 2-1 승리를 이끌었다. 3경기 연속 승리를 쟁긴 토트넘은 11승3무4패(승점 36)로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승점 34)를 따돌리고 4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에버턴의 추격을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마지막 15분은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도 승점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15

분을 남겨두고 2-1이 된 상황은 항상 치열하다. 우리는 승점 3점을 따낼 자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을 통틀어 리그에서 10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황에서 11골을 넣었다. 통증에서 벗어난 게 비결이라고 그는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에는 시즌 내내 통증이 심했다”며 “이제는 통증이 없어졌고 팀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맨체스터시티를 제치고 리그 4위에 올랐다. 4위 안에 들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그는 “우리 목표는 4위권 내 진입”이라며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김민재, 외신 선정 2023년 최고의 중앙 수비수 1위

2위는 맨시티 디아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외신이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중앙 수비수에 뽑혔다. 24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포츠매체 스포츠카다는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센터백 5명을 선정하면서 김민재를 1위에 올렸다. 이 매체는 “김민재는 2022~2024시즌 나폴리(이탈리아)에서 세리에A 우승을 33년 만에 차지하는 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며 “피지컬을 넘어 평정심과 기술도 보여줬다. 현재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뒤 지난해를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뮌헨에서도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으며 팀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스포츠카다는 “김민재는 뮌헨 합류 뒤 빠질 수 없는 선발 멤버가 돼 꾸준히 팀에 기여하고 있다”며 “후방 라인을 지키는 데 능력이 탁월



하다. 또 리더십도 갖췄다”고 극찬했다. 김민재에 이어 센터백 2위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의 트레블 주역인 후벵 디아스가 자리했다. 뉴스

3위는 다비드 알라바(레알 마드리드), 4위는 윌리엄 살리바(아스널), 5위는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 순이다. 뉴스

KBO, 완도·해남군과 남해안벨트

야구 인프라 구축 등 개선 협의

남해안벨트 통한 야구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KBO 허규연 총재는 지난 21일과 22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를 차례로 방문해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아마추어, 동호인 야구팀의 대회와 동계전지훈련이 가능한 야구장 인프라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면담에서 기존에 조성된 야구장에 실내야구연습장을 추가 구축하고, 새로운 야구장 1면을 추가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허 총재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비시즌 야구선수들의 피로회복과 컨디션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는 야구장을 비롯해 실내 연습장 등 야구대회 및 동계전지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협의했으며, 2024년 2월 진행 예정인 2024 KBO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Next-Level Training Camp)를 해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허 총재는 두 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남 야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야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KBO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남해안벨트 야구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야구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



김하성, '2023년 예상하지 못한 스타 탄생' 선정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8)이 2023년 메이저리그(MLB)의 깜짝 스타 8인에 선정됐다. MLB닷컴은 25일(한국시간) 올 시즌 예상을 뛰어넘은 선수 8명을 소개했다. 매체는 “오프 시즌 샌디에이고에 유격수 젠더 보가츠가 가세하면서 2023년 김하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시즌 동안 불안정한 팀에서 가장 꾸준한 기여를 한 선수 중 한 명이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하성은 첫 번째 골드글러브상을 수상했고, 출루율을 2022년 0.325에서 0.351로 높였고, 도루도 지난해 12개에서 38개(MLB 전체 6위)로 높였다. 샌디에이고의 실망스러운 성적을 올렸지만 김하성은 MVP가 됐다”고 설

명했다. 김하성은 올해 1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0, 140안타 17홈런 60타점 84득점 38도루를 기록했다. 수비에서는 2루수와 3루수, 유격수 부문을 두루 책임졌다. 2루수로 106경기 856%이닝을 뛰고 3루수로 32경기 253%이닝, 유격수로 20경기 153%이닝을 소화하며 다재 다능한 수비 실력을 뽐냈다. MLB닷컴은 김하성과 함께 카일 브래디시(볼티모어 오리올스), J.P. 크로포드(시애틀 매리너스), 놀란 존스(콜로라도 로키스), 조던 몽고메리(텍사스 레인저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시카고 화이트삭스), 저스틴 스틸(시카고 컵스), 브라이언 스톱(필라델피아 필리스) 등 8명을 뽑았다. 뉴스

오타니 “10년 투타겸업 목표...3번째 수술 받는다면 투수 포기”

“오랫동안 최고 퍼포먼스 이어가고파...전력 다할 것”



투수로도, 타자로도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메이저리그(MLB)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른 오타니 쇼헤이(29·LA 다저스)가 또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면 투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오타니는 24일 방송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받은 오른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지리)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오타니는 “오랫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싶다. 10년 동안 투타겸업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까지는 어떤 선수도 그렇게 길게 투타겸업을 한 사례가 없어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력을 다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길게 투타겸업을 하고 싶지만, 투수로써 이미 두 번 수술을 받았다. 만약 같은 증상이 또 생겨 3번째 수술을 받아야한다면 투수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에서 투타겸업을 펼쳤던 오타니는 2018년 LA 에인절스와 계약하고 MLB에 진출한 뒤에도 투수, 타자로 동시에 뛰었다. MLB는 전무후무한 오타니의 투타겸업에 열광했다. 그러나 팔꿈치 부상으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2018년 10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고, 2019년 팔꿈치 재활을 이어가면서 타자로만 뛰었다. 오타니는 올해 8월 말 또 팔꿈치에 문제가 생겼다. 타자로는 계속 뛸 계획이었으나 옆

구리에도 부상이 생겨 시즌을 조기 마감했고, 9월 수술대에 올랐다. 내년 시즌 투수로 뛸 수 없는 오타니는 2025년부터 투타겸업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시즌 뒤 프리에이전트(FA)가 된 오타니는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년, 7억달러(약 9240억원)에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다. 오타니는 피치클러(투구 시간 제한)이 팔꿈치 부상에 영향을 있는 것 같으면서 “익숙하지 않다보니 피로가 쉽게 쌓이는 느낌이였다. 적응하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초대형 계약을 맺었음에도 오타니는 변함 없는 모습이다. 오타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없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야구하고, 많이 자는 것이 제일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봉 순위나 팀 내 위치가 바뀌면 물론 책임도 커진다. 그러나 그외의 것은 무리하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